

항만과 산업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www.kmi.re.kr

발행일 2024년 8월 29일
편집·발행인 김종덕 원장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연구본부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동삼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TEL 051-797-4800 **FAX** 051-797-4810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02 국내 항만 주요 동향

14 국외 항만 주요 동향

27 품목 및 산업 주요 동향

국내 항만 주요 동향

- ▶ 부산항, LNG 추진 컨테이너선 벙커링·하역 동시 작업 국내 최초 성공
- ▶ 해양수산부,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 광양항 항만배후단지, 역대 상반기 중 최대 물동량 기록

국외 항만 주요 동향

- ▶ Ningbo-Zhoushan항, 컨테이너선 폭발 사고 발생
- ▶ 인도 항만 노동자, 무기한 파업 예정
- ▶ 멜버른항 곡물 수출 사상 최고 기록

품목 및 산업 주요 동향

- ▶ 머스크, 원자력 추진 컨테이너선 개발 추진
- ▶ '24년 원목 수입량 역대 최저 예상
- ▶ 석유화학 업황, 단기간 내 회복 어려울 전망

01 국내 항만 동향

1) 부산항

① LNG 추진 컨테이너선 벙커링·하역 동시 작업 국내 최초 성공¹⁾

- 부산항만공사(BPA)는 지난 8월 8일 부산항 신항 5부두에서 국내 최초로 LNG 추진 컨테이너선에 대해 벙커링 및 하역 동시 작업 실증을 성공적으로 완료함
 - 2천 TEU급 컨테이너선으로 총 270톤의 LNG를 선박 대 선박(STS : Ship to Ship) 방식으로 공급함
 - 해당 사업은 BPA, 해양수산부, 한국엘엔지벙커링(주), 부산항 운영사들이 협력하여 추진함
- 한편, 부산항은 국제해사기구(IMO)의 탄소 배출 규제강화에 따라 LNG 추진 선박이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LNG 벙커링 기반 구축에 힘쓰고 있음
 - 지난 2월 부산항 감만부두에서 두 차례 자동차운반선을 대상으로 LNG 벙커링 실증 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실증 사업에 대해 항만시설이용료 면제 혜택을 주는 등 실증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지원하고 있음
 - 또한, 올 하반기 ‘부산항 친환경 선박 복합연료 공급 인프라 구축 사업계획 수입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통해 부산항 내 LNG 외의 친환경 선박 연료(메탄올, 암모니아 등) 공급도 가능토록 노력할 예정이라 밝힘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1) 부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24.08.09.), <https://www.busanpa.com/kor/Board.do?mode=view&mCode=MN1445&idx=32526>(2024.08.19. 검색)

2 AI 기반의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추진²⁾

- BPA는 에너지기술평가원(KETEP)이 주관한 ‘2024년 에너지 수요관리 핵심기술 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AI 기반의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 본 공모사업은 (주)에코시안이 주관기관을 맡고 BPA를 비롯하여 16개사가 공동 연구개발 기관으로 참여하였으며, 총 180억 원의 정부 예산을 확보함
 - 주관기관과 BPA는 '28년 5월까지 약 4년 동안 건축물의 공간별 특성 등을 고려한 AI 기반 에너지 관리 기술 및 복합건물 관리 시스템 통합기술 등을 적용하여 건축물 자율제어를 통한 에너지 소비 절감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함
- 개선사업은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내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를 대상으로 하며, 해당 기술이 개발될 경우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의 약 30% 이상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BPEX 공간의 사용 용도, 이용자 수, 냉난방기·조명 등 다중 객체 데이터, 실내 온습도 등 환경 데이터, 편의성 지수 등 사용자 선호도, 사용자 에너지 소비 패턴 데이터 등을 AI에 학습시켜 건축물 에너지효율을 최적 상태로 자율 제어하는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임
 - 시스템 적용으로 연간 약 375MWh의 전력이 절감되고 이로 인해 온실가스 172톤이 감축될 것으로 기대됨
- 한편, BPA는 해당 사업에 따른 기술이 부산항 건축물 전반에 걸쳐 에너지 소비효율을 개선하게 되면 탄소중립 항만으로 한 단계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2) 부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24.08.02.), <https://www.busanpa.com/kor/Board.do?mode=view&mCode=MN1445&idx=32502>(2024.08.19. 검색)

2) 인천항

1 해양수산부,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³⁾

- 해양수산부는 사업제안서 평가를 거쳐 최초제안자인 IPA·인천광역시·인천도시공사를 1·8부두 재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 향후 해양수산부는 IPA·인천광역시·인천도시공사와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한 후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계획 고시, 실시계획 승인 등 '25년 말 착공을 위한 후속 절차를 완수할 계획임
-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은 내항을 시민에게 돌려주고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이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8, sygen@kmi.re.kr

2 글로벌 6위 선사 ONE⁴⁾, 인천항 최초 기항⁵⁾

- 지난 7월 8일 신규 개설된 KCM4 서비스의 공동 운영 선사인 ONE은 7월 31일 인천 선광 터미널에 첫 기항함
- 고려해운, 남성해운, ONE, PIL이 공동 운영하는 KCM4 서비스는 2,540~2,754TEU급 선박 4척이 투입되는 주 1항차 서비스로 주요 기항지는 중국(상하이, 칭다오, 서커우), 말레이시아(포트클랑), 베트남(호치민)임
- ONE는 THE 얼라이언스 해운동맹 가입 선사로 HMM이 단독 운항하고 있는 인천항과 미주를 잇는 직항서비스 PSX(Pacific Southwest Express)의 선복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있음

이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8, sygen@kmi.re.kr

3) 인천항만공사 보도자료(2024.08.21.), <https://www.icpa.or.kr/article/view.do?articleKey=28266&boardKey=217&menuKey=400¤tPageNo=1>(2024.08.22. 검색)

4) 2017년 일본 3대 컨테이너 선사(NYK, MOL, K-Line)의 컨테이너 부문 통합 및 공동투자로 발족한 선사

5) 인천항만공사 보도자료(2024.08.01.), <https://www.icpa.or.kr/article/view.do?articleKey=28188&searchSelect=title&boardKey=217&menuKey=400¤tPageNo=2>(2024.08.22. 검색)

3) 여수·광양항

① 광양항 항만배후단지, 역대 상반기 중 최대 물동량 기록⁶⁾

- 여수광양항만공사(YGPA)는 올해 상반기 광양항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에서 처리한 컨테이너 물동량이 66만 3천 TEU로, 광양항 배후단지 개장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힘
- YGPA는 배후단지 임대율 100% 달성으로 인해 입주기업이 늘고, 신규 입주기업의 본격 운영 개시 등 활발한 영업 활동을 항만배후단지 물동량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함
 - 특히 올해 상반기 동·서측 배후단지 확충공사 준공 후 10개의 기업이 추가로 입주하면서 앞으로 물동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YGPA는 입주기업과의 다양한 소통 창구 운영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광양항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은 재무·사업모델 컨설팅 및 중소기업 해운물류 맞춤형 지원제도 프로그램으로 작년 한 해 11개 기업에서 2억 3천만 원을 지원받은 바 있음
 - 아울러, YGPA는 입주기업 근로자의 건강과 여가 생활 증진을 위해 테니스장 및 파크골프장 조성 등 추가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입주기업 지원 정책 강화, 임대 가능 부지확보 등 기업 투자유치를 통해 물동량 증가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힘

김영훈 전문연구원

051-797-4668, kyh@kmi.re.kr

6) 여수광양항만공사 보도자료(2024.07.24.), [https://www.ygpa.or.kr/kr/ygpa/public_corporation_news/public_corporation_news/?boardId=bbs_0000000000000213&mode=view&cntId=1778&category=\(2024.08.19. 검색\)](https://www.ygpa.or.kr/kr/ygpa/public_corporation_news/public_corporation_news/?boardId=bbs_0000000000000213&mode=view&cntId=1778&category=(2024.08.19. 검색))

4) 울산항

① 울산항만공사(UPA), 북신항 액체부두 임대사업자 5차 재공모⁷⁾

- UPA는 지난 3월 준공된 울산 북신항 액체부두에 대한 임대사업자 모집을 7월 23일부터 8월 2일까지 총 11일간 시행함
- 임대 예정인 북신항 액체부두는 UPA가 총 91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남구 황성동 전면 해상에 5만 톤급으로 조성함
- 임대사업자로 선정되면 270m 길이의 선석을 포함한 총 9,944㎡의 항만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총 4차에 걸친 임대사업자 공모에서도 아직 임대조건에 부합하는 최적의 사업자를 찾지 못한 상황임
- 관련 법령에 따라 UPA는 지난 4차 재공모에서 임대료 기초가격을 인하해 사업자를 모집 한 바 있으며, 이번 5차 재공모에서는 최초 대비 20% 인하된 임대료 기초가격으로 사업자를 모집함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② UPA, 공공주도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조성을 위한 탱크터미널 지분출자 계약 체결⁸⁾

- UPA와 현대오일터미널(주)은 8월 1일 ‘울산항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조성을 위한 탱크터미널 지분출자 계약’을 체결함
- 이번 출자는 '23년 11월 정부의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친환경선박연료 공급망 구축 방안’의 후속 조치로 UPA가 주도적으로 메탄올 등 친환경 선박연료 전용 저장탱크 증축을 추진하여 국내 해운항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됨
- UPA는 울산항에 본사를 둔 탱크터미널 기업인 현대오일터미널과 240억 원 규모의 지분출자를 위한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했으며, 현대오일터미널의 최대주주인 오리온터미널 유한회사와는 지분출자에 따른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함

7) 울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24.07.22.), <https://www.upa.or.kr/portal/board/post/view.do?bclidx=671&mid=0501010000&idx=14127>(2024.08.17. 검색)

8) 울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24.08.01.), <https://www.upa.or.kr/portal/board/post/view.do?bclidx=671&mid=0501010000&idx=14133>(2024.08.17. 검색)

터미널 증설로 울산항의 연간 물동량은 친환경 에너지 물동량 약 80만kℓ를 포함하여 약 250만kℓ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됨

- 현대오일터미널은 UPA의 출자를 바탕으로 울산 남신항에 약 3,000억 원 규모의 총 38만kℓ 저장시설을 증설하는 등 터미널 신규 투자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본 사업 중, 1차 증설사업은 부지 내 약 30만kℓ의 메탄올·에탄올 등 친환경 연료를 포함한 케미컬 및 유류 저장탱크를 증설하는 사업으로 '26년 상반기 상업 운영이 목표임
- UPA는 탱크터미널의 저장시설 중 10만kℓ를 우선사용하여 터미널 사업에 참여하고, 에너지 기업 및 글로벌 선사 등을 대상으로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활성화를 위한 포트세일즈 및 녹색해운항로의 구축을 적극 추진할 예정임

현대오일터미널 조감도



자료: 울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24.08.01.), <https://www.upa.or.kr/portal/board/post/view.do?bcldx=671&mid=0501010000&idx=14133> (2024.08.17. 검색)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5) 평택·당진항

① 신국제여객부두 제외한 신국제여객터미널 개장 논란⁹⁾

- ▶ 평택·당진항은 10월 신국제여객터미널 개장을 앞두고 있으나, 신국제여객부두가 준비되지 않아 이용객의 불편이 예상됨
- 평택·당진항을 기항하는 국제카페리는 5척으로 현재 국제여객부두에 기항하는 선박은 Ro-Ro(Roll-on/Roll-off)방식으로 하역하는 2척이며, Lo-Lo(Lift-on/Lift-off)방식으로 하역하는 3척은 PNCT를 이용하고 있음
- 정부는 총사업비 1,370억 원을 투입해 '23년 12월까지 21만 6,000㎡ 규모의 부지와 총톤수 3만 톤급 4선석을 조성했으며, Ro-Ro와 Lo-Lo방식의 선석이 각각 2개가 있음
- 신국제여객부두는 '07~'08년에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한 후, '18년 5월에 착공하게 되면서 변화추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신국제여객부두 내 컨테이너 야드 협소 문제, 컨테이너 크레인 부족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신국제여객부두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 터미널을 이전하게 되면 여객 이동 불편 및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며 인명 사상사고 발생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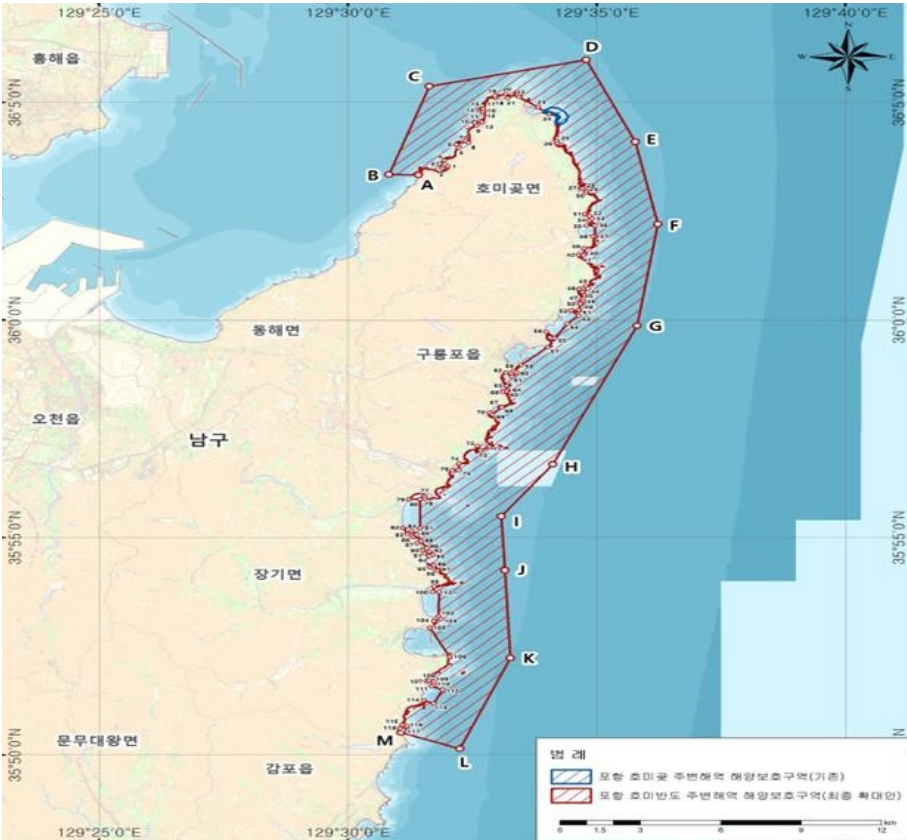
9) 현대해양(2024.08.13.), <https://www.hdh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11>(2024.08.18. 검색)

6) 포항항

1 포항 호미반도 해양보호구역 확대 지정¹⁰⁾

- 지난 8월 5일, 해양수산부는 해양보호생물인 게바다말, 새우말 등이 서식하는 경북 포항 호미반도를 해양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함
 - 호미반도는 '21년 12월 해양생태계 우수성을 인정받아 일부 지역(0.25km²)이 해양 보호구역으로 지정됨
 - 이후 생태계 조사와 공청회를 거쳐 호미곶, 구룡포, 장기면에 걸친 구역(71.77km²)이 해양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됨

포항 호미반도
해양보호구역 확대
지정안



자료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40805052800030>(2024.08.22. 검색)

조성현 연구원
051-797-4690, shcho@kmi.re.kr

10) 연합뉴스문(2024.08.05.), <https://www.yna.co.kr/view/AKR20240805052800030>(2024.08.22. 검색)

7) 동해·묵호항

1 동해시, 묵호항 친수공간 조성 2단계 사업 추진¹¹⁾

- 동해시는 '23년 9월 묵호항 관광 연계 친수공간 조성 1단계 사업 완료에 이어 2단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힘
 - 묵호항은 시민과 관광객들을 위한 휴식 공간이 부족하고 묵호권역 관광 개발에 발맞춰 묵호권 중심인 묵호항의 노후화된 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태임
 - 이에 시는 총사업비 12억 원을 투입, 묵호항 내 유희공간을 활용해 심이 있는 문화공간 등 주민 친화 관광형 친수공간 조성에 나섬
 - 우선 1단계로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투입, 묵호항 냉동공장 건물 외관을 동해시 CI와 연계하여 동해와 일출의 태양을 상징하는 푸른색과 붉은색 계열의 색상을 반영한 외관 도색을 실시함
- 2단계는 사업비 10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쉼터, 휴게시설, 경관 조명, 포토존 등을 갖춘 친수 공간과 테마로드를 만들 계획임
 - 친수 공간에는 수변 스탠드, 테이블 등을 이용한 바다 조망 힐링 포인트를 조성하고 아기자기한 관광 캐릭터(해별이, 푸파)로 꾸미는 등 이색적인 볼거리를 조성할 계획임
 - 또한, 친수공간에서 활·선어 판매센터까지 이어지는 테마로드는 묵호항을 찾는 관광객을 활·선어 판매센터로 자연스럽게 유도해 인근 상권을 활성화할 계획임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11) 전국매일신문(2024.08.11.), <https://www.jeonma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4370>(2024.08.12. 검색)

8) 목포항

① 전라남도-시군, 목포신항 해상풍력 사업 현장 시찰¹²⁾

- 전라남도청과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는 목포 등 9개 시군 단체가 해상풍력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인 목포신항 사업 현장을 시찰하고 미래 비전 등을 공유함
 - 현재 목포신항은 9.9MW 터빈 10기를 비롯하여 타워, 블레이드 등 해상풍력 주요 기자재가 반입되어 해상풍력 발전기 일부 조립 공사를 진행하고 있음
 - 조립이 완료되면 올 12월 준공 예정인 100MW급 규모의 SK E&S 전남해상풍력 발전단지로 이동될 예정임
 - 전라남도지사는 신속한 해상풍력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의 집적화단지 지정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이 외에도 전력 계통 해결을 위해 주민에게 개발 이익을 돌려주는 이익공유 조례 제정 허용 등 이익공유 법제화 등도 촉구함
- 한편, 지난 4월 목포시 등은 목포신항을 해상풍력 지원 항만으로 조성하기 위해 세계 1위 풍력 터빈 제조사인 베스타스와 글로벌 물류기업인 머스크 공동투자에 따라 1단계 항만배후단지에 해상풍력 터빈 생산공장을 건립하기 위한 투자협약 등을 진행한 바 있음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② 목포항~도초도, 신규 여객선 취항¹³⁾

- 새롭게 건조된 ‘섬사랑 6호’ 여객선이 기존의 여객선을 대신하여 7월 26일부터 도초도에서 목포항까지 편도 52km를 하루 1회 왕복하고 있음
 - ‘섬사랑 6호’는 목포 소재의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된 185톤의 차도선으로 여객정원은 120명, 적재능력은 중형승용차 기준 12대로 기존에 투입되던 여객선 대비 적재 능력 및 운항 속력이 향상됨
- 개선된 신규 여객선 투입으로 도서 지역에서의 농수산물 수송 원활화 및 지역주민의 편의 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12) 전라남도청 보도자료(2024.08.16.), [https://www.jeonnam.go.kr/M7116/boardView.do?seq=1956682&infoReturn=&menuId=jeonnam0202000000&displayHeader=&searchType=&searchText=&pageIndex=1&boardId=M7116&displayHeader=\(2024.08.19. 검색\)](https://www.jeonnam.go.kr/M7116/boardView.do?seq=1956682&infoReturn=&menuId=jeonnam0202000000&displayHeader=&searchType=&searchText=&pageIndex=1&boardId=M7116&displayHeader=(2024.08.19. 검색))

13)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보도자료(2024.07.29.), [https://mokpo.mof.go.kr/ko/board.do?menuIdx=1316&bbsIdx=105688\(2024.08.19. 검색\)](https://mokpo.mof.go.kr/ko/board.do?menuIdx=1316&bbsIdx=105688(2024.08.19. 검색))

9) 대산항

1 항만 청정복합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¹⁴⁾¹⁵⁾

- 🏢 ‘대산항 청정복합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사업자로 HD 현대오일뱅크(주)를 선정함
 - ‘대산항 청정복합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의 일환으로 국내 최초로 항만에 그린수소와 암모니아 등의 친환경에너지를 생산·보관·유통하는 복합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임
 -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을 통해 올해 하반기 중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를 추진하며, ’25년 상반기에 사업을 착공할 예정임
 - 항만매립부지 159,108㎡에 대한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거쳐, 1단계로 바이오연료 관련 시설, 2단계로 폐플라스틱 등을 열분해하는 정제유 생산시설, 3단계로 청정암모니아를 활용한 수소생산시설 등이 순차적으로 들어서게 되며 ’31년 전체 사업이 준공될 예정임

현대오일터미널 조감도



자료: 연합뉴스(2024.07.30.), <https://www.yna.co.kr/view/AKR20240729121700030?input=1195m>(2024.08.18. 검색)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14)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보도자료(2024.07.30.), <https://daesan.mof.go.kr/ko/board.do?menuidx=3019&bbsidx=105721>(2024.08.18. 검색)

15) 연합뉴스(2024.07.30.), <https://www.yna.co.kr/view/AKR20240729121700030?input=1195m>(2024.08.18. 검색)

10) 군산항

① 4·5부두 리뉴얼 사업 시행 예정¹⁶⁾

- 군산지방해양수산청(군산청)은 기후변화와 지진 발생에 대한 대응력 제고와 안전성 개선을 위해 4·5부두 리뉴얼 사업 시행을 계획함
- 군산청은 군산항 4·5부두 건설 이후 기후변화에 따른 잦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최근 지진 발생 증가에 따른 내진 기준 상향에 따라 부두 리뉴얼 사업을 수행할 예정임
- 이에 지난 8월 27일 차수벽 설치, 파라핏 등의 설치 방법과 상향된 내진설계 기준 충족을 위한 다양한 공법들을 검토하는 설계용역에 착수함
- 군산청은 군산항 4·5부두 리뉴얼 사업이 완공되면 부두 침수 문제가 크게 개선되어 항만 운영 효율성이 증대되고 이에 따라 군산항 자동차 부두의 서비스 경쟁력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함

이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8, sygen@kmi.re.kr

11) 마산항

① 수상로봇 기반 마산 해역 오염물 통합관리 시스템 실증¹⁷⁾

- 해양환경공단 마산지사는 7월 24일부터 28일까지 마산항 인근에서 수상로봇을 기반으로 한 마산 해역 오염물 통합관리 시스템에 대한 현장 실증을 실시함
- 이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4년도 대규모 융합로봇 실증사업에서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주)쉐코 등과 연합체로 참가해 지난 4월 최종 과제 수행 사업자로 선정된 후 추진한 것임
- 대상 기술은 로봇기업 쉐코가 보유한 로봇을 기반으로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인공지능(AI) 시스템을 활용한 것으로, 부유쓰레기, 정어리 폐사체 등을 로봇이 자동으로 수거하는 장비임
- 인공지능 시스템을 활용한 수상로봇이 도입되면 마산항 환경 문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작업자 안전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16) 전민일보(2024.08.24.), <https://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3499>(2024.08.27. 검색)

17) 경남연합일보(2024.08.04.), <https://www.gn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6763>(2024.08.19. 검색)

02 국외 항만 동향

1)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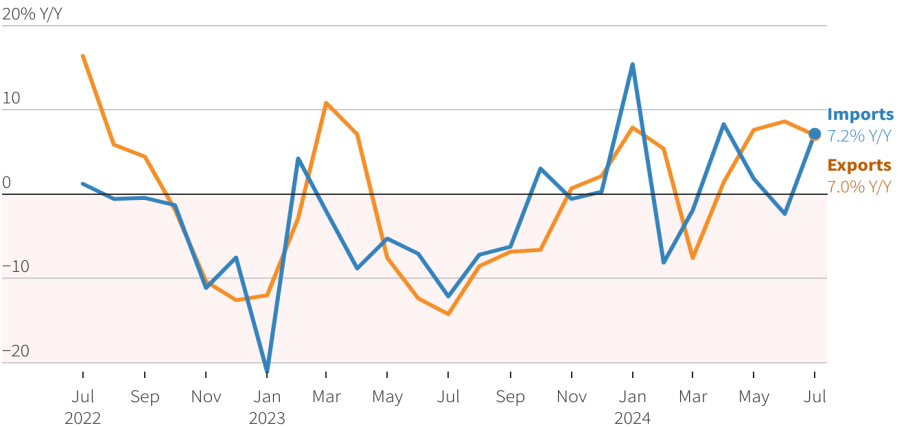
① '24년 7월 수입은 예상 대비 큰 폭 증가, 그러나 수출 증가세 둔화로 하반기 중국 무역 전망 우려 증가¹⁸⁾

- ◆ 7월 중국의 수입은 6월 2.3% 감소세를 뒤집고 최근 3개월 중 가장 강력한 증가세인 7.2%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시장 예상치인 3.5%를 크게 웃돈 수치임
 - 호주뉴질랜드은행(ANZ)의 수석 중국 전략가는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를 예상하여 규제 전 대량으로 반도체를 수입한 것이 증가세의 주요 원인이라고 밝힘
 - 그 외 원유 수입은 '22년 9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철광석과 대두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함
- ◆ 수출의 경우 최근 3개월 중 증가세가 가장 낮은 전년 대비 7.0% 증가를 기록하였으며, 또한 시장 예상치인 9.7%보다 낮은 수치임
 - ING 중화권 수석 경제학자는 지난해 수출 실적 악화에 따른 기저효과로 당분간 한 자릿수 성장률은 유지할 수 있지만 외부의 수요 감소와 관세 정책 등을 고려할 때 하반기에는 수출에 더 큰 압박이 가해질 것으로 전망함
- ◆ 전문가들은 무역 사이클의 상승세가 종료되었을 수 있으며 3분기에는 수입과 수출 모두 둔화될 것으로 예상함
 - 미국을 비롯하여 유럽, 인도네시아 국가에서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는 등 관세 장벽을 높이고 있어 수출 성장 둔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함
 - 한편, 이러한 관세 인상 정책 등으로 반도체 비축을 위해 수입이 급증하였지만, 내수 침체로 인해 수입 역시 향후 둔화될 것으로 전망함
- ◆ 한편, 중국 정책 입안자들은 중국 내 소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부양책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추가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음
 - '24년 2분기 경제성장률이 4.7%를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밑돌아 올해 연간 성장 목표인 5%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지원책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18) REUTERS(2024.08.07.), <https://www.reuters.com/markets/asia/chinas-exports-growth-slows-3-month-low-july-imports-up-solidly-2024-08-07/> (2024.08.19. 검색)

중국 수출입 전년 대비
증가율

Change in exports and imports



자료 : REUTERS, <https://www.reuters.com/markets/asia/chinas-exports-growth-slows-3-month-low-july-imports-up-solidly-2024-08-07/>
(2024.08.19. 검색)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2 Ningbo-저우산항, 컨테이너선 폭발 사고 발생¹⁹⁾

8월 9일, Ningbo-저우산항 베이룬 제3 컨테이너 터미널에 정박해 있던 컨테이너 선박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함

- 해당 컨테이너 선박은 양밍해운의 소유한 'YM 모빌리티호'로 컨테이너 내 위험물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도됨
- 화주가 제출한 신고서에 따르면 전원 연결이 필요 없는 냉동 컨테이너(reefer)로 드라이 컨테이너 대신 사용된 것으로 파악되나 구체적인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해 양밍해운은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밝힘
- 폭발 즉시 화재 진압 조치가 이뤄졌으며 모든 선원들이 안전하게 대피하면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폭발 이후 해당 터미널은 잠정적으로 폐쇄됨

사고 이후 약 60시간이 지난 8월 12일 자정을 기점으로 제3 컨테이너 터미널은 하역 작업을 재개함²⁰⁾

- 컨테이너 해운물류기업 xChange는 일시적인 터미널 폐쇄에 따라 해당 터미널에 대해 향후 몇 주 동안 컨테이너 운송 일정이 지연될 수 있으며, 특히 위험물에 대한 컨테이너 공급이 타이트해질 가능성을 대비해야 한다고 밝힘
- 다만, Ningbo-저우산항이 전 세계 컨테이너 시장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이 글로벌 공급망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적다고 밝힘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19) Freight Waves(2024.08.13.), <https://www.freightwaves.com/news/china-port-explosion-snarls-trans-pacific-container-trade>(2024.08.19. 검색)

20) Trans.info(2024.08.13.), <https://trans.info/en/ningbo-port-explosion-safety-394770>(2024.08.19. 검색)

2) 아시아



1 말레이시아 포트클랑(Port Klang)항의 '23년 컨테이너 실적, 세계 11위 기록²¹⁾

- 로이드리스트(Lloyd's List)에 따르면 싱가포르에 이어 동남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포트클랑항의 '23년도 컨테이너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한 1,406만TEU임
 - 컨테이너 해운시장 전문가들은 유럽, 중동을 연결하는 주요 해운로의 교차로에 있는 포트클랑항이 동남아시아 지역의 환적 허브항으로 발돋움하여 1~2년 내에 세계 10위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함
 - '24년 상반기에 포트클랑항의 컨테이너 실적도 전년 대비 5.6% 증가한 840만 TEU를 기록, 연간 실적은 5.5% 증가하며 약 1,483만 TEU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말레이시아 교통부(MOT)는 해당 부처, 포트클랑 항만공사(Port Klang Authority), 터미널 운영자 및 전략적 파트너들의 노력으로 포트클랑항의 순위가 크게 개선되었다고 평가하며 향후 아시아의 유통 및 물류 중심항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힘

이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8, sygen@kmi.re.kr

21) Business Times(2024.08.22.), <https://www.nst.com.my/business/corporate/2024/08/1095129/port-klang-11th-busiest-port-out-top-100-worldwide> (2024.08.22. 검색)

2 인도 항만 노동자, 무기한 파업 예정²²⁾²³⁾

 인도 항만 노동자 연합은 임금 인상과 연금 혜택 등 복지를 요구하며, 8월 28일부터 파업을 예고함

- 인도 내 약 2만여 명의 노동자가 파업에 참여할 예정이며, 파업이 실행되면 즉각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겠으나, 파업이 2~3일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여파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아시아와 유럽 항만의 기존 혼잡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해상운송 지연 등 전 세계 교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인도 항만 노동자 연합과 정부는 그간 7차례의 회의를 가졌으나, 항만 노동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만큼의 합의안을 도출하지는 못함
- 한편, 노동자 연합은 이번 파업을 철회하기 위해서는 임금 인상, 체불 임금 지급, 기존 복지후생 보호 등의 요구사항을 정부가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정부는 아직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임

김영훈 전문연구원

051-797-4668, kyh@kmi.re.kr

22) WorldCargo news(2024.08.14.), <https://www.worldcargonews.com/news/2024/08/indian-port-workers-announce-nationwide-strike/>(2024.08.19. 검색)

23) Reuters(2024.08.19.), <https://www.reuters.com/world/india/india-port-workers-go-strike-demand-better-wages-benefits-2024-08-19/>(2024.08.20. 검색)

3 NYK, 인도에서 일본까지 녹색 암모니아 해상운송 협약 체결²⁴⁾

NYK는 지난 8월 20일 아시아의 대표 에너지 기업인 Sembcorp Industries의 자회사인 Sembcorp Green Hydrogen Pte. Ltd와 공동으로 녹색 암모니아의 일본 해상 운송에 대한 기본 합의를 체결함

- NYK는 큐슈전력, Sojitz, Sembcorp Green Hydrogen Pte. Ltd와 협력하여 풍부한 재생 에너지원이 있는 인도에서 생산된 녹색 암모니아를 일본으로 운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이 프로젝트는 연간 약 20만 톤의 녹색 암모니아를 인도에서 생산하고, NYK의 암모니아 해상 운송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큐슈 지역의 산업 수요자들에게 공급할 계획임

김영훈 전문연구원

051-797-4668, kyh@kmi.re.kr

24) Port news(2024.08.21.), [https://en.portnews.ru/news/366840/\(2024.08.22. 검색\)](https://en.portnews.ru/news/366840/(2024.08.22. 검색))

3) 미주



① 미국 동부 및 멕시코만 항만에서 10월 파업 가능성 경고²⁵⁾²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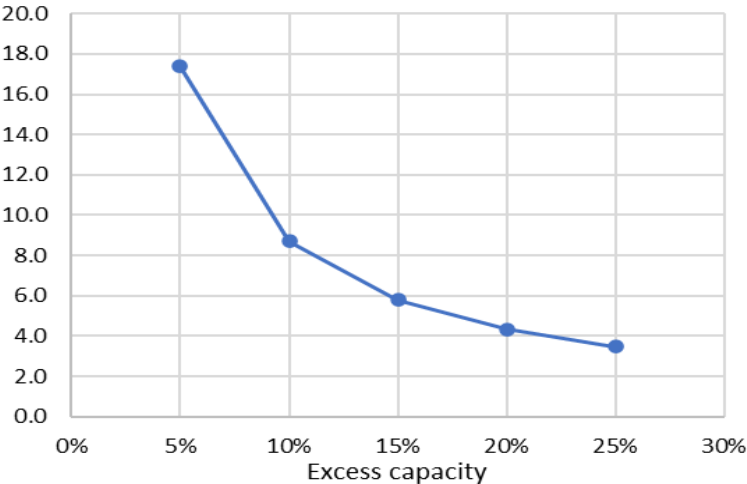
- ❖ 국제항만노동자협회(ILA)는 미국해운연합(USMX)과의 협상이 지연되면서 10월 1일 미 동부대서양 및 걸프 해안 항구에서 파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경고함
 - 현재 계약은 '24년 9월 30일에 만료될 예정이며, ILA는 일부 고용주들이 자동 게이트 시스템을 도입하여 노동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6월 초 예정된 협상을 취소함
 - ILA는 계약 요구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10월 1일에 파업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으며, 협상이 재개될 경우, 해운사들이 팬데믹 동안에도 항만을 이용한 기록적인 이익을 창출에 기여한 ILA 노동자들의 공로를 인정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 ❖ Sea-Intelligence는 10월 동부 항만은 예상 처리량보다 13% 더 많은 화물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며, 하루 파업으로 인한 적체를 해소하는 데 6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음
 - 과거 실적을 토대로 보면 미국 동부 항만은 10월에 약 230만 TEU의 컨테이너를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며, 하루 7만 4,000TEU에 해당함
 - 하루 파업으로 인해 매일 2만 TEU의 적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파업 종료 후에도 컨테이너 적체를 처리하기 위해 추가 용량이 필요함
 - 1주일간의 파업이 발생할 경우, 적체 해소는 11월 중순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며, 2주간의 파업이 발생한다면 '24년 내에는 항만 운영이 정상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큼
 - 다만, 항만에 시설이 추가 확보된다면 적체 해소 기간이 4~5일로 단축될 수 있음

25) Port Technology(2024.07.16.),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ila-president-warns-of-october-strike-at-atlantic-and-gulf-coast-ports/>(2024.08.19. 검색)

26) Port Technology(2024.08.14.),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ila-strike-could-add-13-per-cent-excess-capacity-to-east-coast-ports/>(2024.08.19. 검색)

파업 1일 발생 미처리
물동량의 초과수용능력
수준별 처리 기간

Fig. 1: Days to clear 1 day of strike
Scenario: Excess volumes only handled
on US East Coast



자료: 연합뉴스(2024.07.30.), <https://www.yna.co.kr/view/AKR20240729121700030?input=1195m>(2024.08.18. 검색)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2 파나마 운하, 9월부터 통항 슬롯 증가 및 새로운 장기슬롯할당방식(LoTSA) 도입²⁷⁾²⁸⁾

- ▶ 파나마 운하는 최근 강우로 그간 가뭄으로 인한 제약이 완화되어 9월부터 일일 통항 슬롯을 증가시킬 계획임
 - '23년은 파나마 역사상 세 번째로 건조한 해로 기록되었으며, 이로 인해 운하의 수위가 크게 낮아졌으며, 운하를 이용하려는 100척 이상의 선박이 최대 21일 동안 대기하는 상황이 발생한 바 있음
 - 현재는 일일 통항 횟수가 34회로 회복되었으며, 9월에는 36회로 증가시킬 예정임
- ▶ 파나마 운하는 새로운 장기슬롯할당방식(LoTSA, Long-Term Slot Allocation)을 도입하여 확정성과 유연성을 높일 계획임
 - 현재의 예약 시스템은 슬롯 제공이 필요한 날짜 전에 예약 기간을 두고 매일 이루어지는데,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면 여러 개의 예약 패키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됨
 - 각 패키지에는 북향과 남향 모두 연간/주간/월간 빈도로 특정 슬롯 수가 포함되고 웹사이트에 게시된 예약 슬롯 예상 이용 가능 여부를 통해 발표하여 경매를 통해 최고 입찰자에게 할당됨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27) Port Technology(2024.08.01.),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panama-canal-to-increase-september-transit-slots-amidst-recent-rainfall/>(2024.08.19. 검색)

28) Port Technology(2024.08.05.),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panama-canal-launches-new-long-term-slot-allocation-method/>(2024.08.19. 검색)

4) 유럽



① 함부르크항 '24년 상반기 물동량 소폭 감소²⁹⁾

- 독일의 경제 침체 상황과 홍해 위기에도 불구하고, 독일 최대 항만인 함부르크항의 올해 상반기 물동량은 소폭 감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남
- 함부르크항의 상반기 총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3.9% 감소한 5,590만 톤을 기록했으며,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0.3% 감소한 380만 TEU를 기록함
- 함부르크항 마케팅 CEO Axel Mattern은 화석 연료에서 대체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탈탄소화의 영향으로 벌크 화물 수치가 감소했으며, 상반기 벌크 화물 총처리량은 12.1% 감소한 1,670만 톤을 기록, 석탄 처리량은 11.8% 감소했다고 발표함
- 한편, 컨테이너선의 입항 횟수와 항만 후방지역에서의 철도 운송 비율이 증가했으며, 적재된 컨테이너 물량은 0.5% 증가한 340만 TEU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남

조성현 연구원

051-797-4690, shcho@kmi.re.kr

29) Port Technology(2024.08.20.),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port-of-hamburg-processes-3-8-million-teu-in-h1-2024/>(2024.08.22. 검색)

2 머스크 및 하팍로이드, 상반기 영업이익 전년 대비 감소³⁰⁾³¹⁾

- 머스크의 상반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한 163억 7,900만 달러, 영업이익은 90% 감소한 3억 900만 달러를 기록함
 - 동기간 컨테이너 수송량은 602만 9,000FEU로 전년 563만 FEU와 비교해 7%가 늘어난 반면, 평균 운임은 2,651달러에서 2,435달러로 8% 감소했으며, 해상물동량이 증가했으나 희망봉 우회에 따른 운항비용 증가로 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머스크는 오는 '26~'30년 80만 TEU의 친환경 선단을 확충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메탄올 선박 발주에 주력해 왔지만 향후 바이오LNG 연료 사용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힘
- 하팍로이드는 '24년 상반기 7억 9,100만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31억 달러 대비 75% 감소한 수치임
 - 코로나19 팬데믹 종료 이후 시장 상황 변화와 운항비용 증가로 하팍로이드의 수익성이 전년 동기 대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4년 2분기에는 수요 증가와 운임 상승으로 비교적 양호한 성과가 나타났다고 밝힘
 - 하팍로이드는 홍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선박과 컨테이너를 추가하여 공급망을 유지했으며, 동시에 선단 탈탄소화와 Hanseatic Global Terminals 브랜드 하의 터미널 사업 확장에 주력하고 있음

조성현 연구원

051-797-4690, shcho@kmi.re.kr

30) Port Technology(2024.08.07.),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maersk-reports-increased-earnings-in-q2-2024/>(2024.08.22. 검색)

31) Port Technology(2024.08.14.),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hapag-lloyd-ends-h1-2024-with-profit-loss/>(2024.08.22. 검색)

5) 오세아니아



1 멜버른항 곡물 수출 사상 최고 기록³²⁾

- ▶ '24년 회계연도('23년 7월~'24년 6월)동안 멜버른항에서 출하된 곡물의 총량이 377만 톤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 이는 전년 대비 5% 증가한 수치임
 - 곡물 수출이 멜버른 항구의 전체 컨테이너 수출량의 30%를 차지하며 가장 큰 수출 품목으로 자리 잡았으며 곡물 수출은 '19년부터 '24년까지 연평균 36%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꾸준히 증가함
 - 이번 회계연도에서 가장 많이 수출된 곡물은 밀로, 총 207만 톤이 수출되었으며, 이는 전체 수출의 19%에 해당, 그 뒤를 보리(68만 8천 톤), 카놀라(24만 8천 톤), 맥아(20만 6천 톤), 그리고 기타 곡물과 귀리(16만 2천 톤)임
- ▶ '19년에는 가뭄으로 인해 곡물 수출량이 70만 톤으로 크게 줄어들었지만, 이후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으로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다시 회복세를 보임
 - 이들 3개국이 전체 곡물 수출의 49%를 차지하며, 특히 중국은 멜버른 항구에서 출하되는 곡물의 주요 수입국으로 부상함
 - 지난 1년간 중국으로의 곡물 수출이 77% 증가했으며, 그중에서도 보리 수출이 가장 큰 성장을 기록함
- ▶ 멜버른이 위치한 빅토리아주의 경제에서 농업 수출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멜버른 항구는 앞으로도 세계 시장에 품질 높은 곡물을 공급함으로써 주와 국가 경제의 번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32) World grain(2024.08.05.), <https://www.world-grain.com/articles/20300-port-of-melbourne-grain-exports-reach-record>(2024.08.19. 검색)

6) 아프리카



1 더반항, 주요 진입도로 개선 사업 진행³³⁾

- ❖ 더반항 주변의 주요 도로 개선 사업이 진행 중이며, 이로 인해 지난 10년 이상 지속된 역내 교통 혼잡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Transnet National Ports Authority(TNPA)는 8월 7일 성명을 통해 항만 내 시설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포괄적인 진입도로 개선 사업을 착실히 진행하고 있다고 밝힘
 - 이 프로젝트는 항만 경계 내의 노후된 도로 인프라로 인해 발생하는 지연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함
- ❖ 더반항의 주요 진입도로 개선 사업은 '23년 9월에 시작되었으며, 현재까지 메이돈 워프(Maydon Wharf)와 베이헤드(Bayhead) 구역의 도로 공사의 58%가 완료됨
 - 이 작업에는 툴롱 로드(Toulon Road), 베이헤드 로드(Bayhead Road)와 사우스 코스트 로드(South Coast Road)의 교차로, 데이비 로드(Davey Road), 파커 로드(Parker Road), 맥브라이드 로드(McBride Road), 플레처 로드(Fletcher Road), 그리고 와이즐리 로드(Wisely Road) 등이 포함됨
 - 특히 메이돈 로드(Maydon Road)와 존스톤 로드(Johnstone Road)에서는 대규모 보수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여기에는 배수관 파이프 청소, 경계석 및 채널 청소, 기존 아스팔트의 밀링 및 포장에 포함되어 있음
- ❖ 이 개선사업은 메이돈 워프, 컨테이너, 베이헤드 및 아일랜드 뷰 구역의 도로 안전, 교통 흐름 및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됨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33) Southern Africa's freight News(2024.08.07.), <https://www.freightnews.co.za/article/durban-port-major-road-upgrades-under-way>(2024.08.19. 검색)

03 품목 및 산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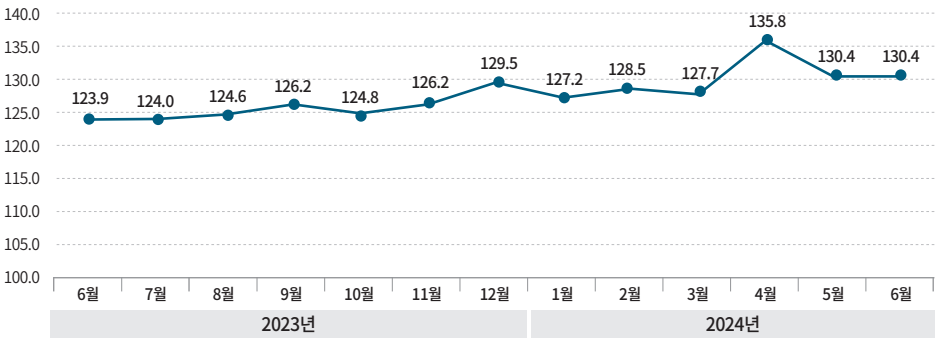
1) 컨테이너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처리지수

1 '24년 6월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전월과 유사한 수준 기록³⁴⁾

- ’24년 6월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지수는 전월 수치에서 유사한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전년 동월 대비 5.2% 증가한 130.4p를 기록함
 - 중국 항만에서의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 실적은 145.9p로 전월 대비 0.7%, 전년 대비 5.6% 증가하면서 유로존 지역에서의 감소세를 상쇄함
 - 유로존 북부와 독일 지역의 6월 항만물동량 지수(North Range Index)는 전월 대비 1.4% 하락하였으나, 전년 동월 대비 4.3% 증가한 111.3p를 기록함



구분	2023년							2024년						증가율(%)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Total	123.9	124	124.6	126.2	124.8	126.2	129.5	127.2	128.5	127.7	135.8	130.4	130.4	0.0	5.2
China Index	138.2	137.3	139.1	138.7	135.9	138.3	145.6	141.7	139.1	137	161.6	144.9	145.9	0.7	5.6
North Range Index	106.7	107.1	104.6	103.1	103.4	101.4	101.8	97.5	111.1	113.2	111.2	112.9	111.3	-1.4	4.3

주: 2015=100, 계절조정
자료: IISL, [https://www.isl.org/en/services/rwiisl-container-throughput-input-index-0624\(2024.08.19. 검색\)](https://www.isl.org/en/services/rwiisl-container-throughput-input-index-0624(2024.08.19. 검색))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34) ISL(2024.07.26.), [https://www.isl.org/en/services/rwiisl-container-throughput-input-index-0624\(2024.08.19. 검색\)](https://www.isl.org/en/services/rwiisl-container-throughput-input-index-0624(2024.08.19. 검색))

2 머스크, 원자력 추진 컨테이너선 개발 추진³⁵⁾

- 머스크는 영국 로이드 레지스터(Lloyd's Register)와 영국 런던의 원자력공학시설인 코워 파워(Core Power)가 주도하는 원자력 추진 컨테이너선 개발 연구 참여를 발표함
 - 해운업계는 기술의 발전으로 상업용 선박에 원자력 원료를 사용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으며, 지난해 업계 관계자들은 해당 기술의 상용화가 향후 10년 이내에 실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함
 - 세 회사는 유럽에서 4세대 원자로를 사용하는 컨테이너선이 화물 운송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과 이를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할 예정임
 - 이를 위해 컨테이너선에서 원자력 사용에 필요한 새로운 안전 규정과 운영 요구사항 등을 조사할 예정임
- 한편, 해운업계는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3%를 차지하고 있으며, 투자자와 환경보호론자들로부터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음
 - 머스크는 원자력이 안전, 폐기물 관리, 지역 간 규제 수용성 등과 관련하여 많은 과제를 안고 있지만 이러한 과제들이 새로운 4세대 원자로 설계의 개발로 해결될 수 있다면 향후 10~15년 내 물류산업의 또 다른 탈탄소화 경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힘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35) Reuters(2024.08.15.), <https://www.reuters.com/business/autos-transportation/maersk-agrees-study-nuclear-powered-container-shipping-2024-08-15/>(2024.08.19. 검색)

3 머스크, 홍해 리스크 지속에도 불구하고 '24년 컨테이너 물동량 성장세 상향 조정³⁶⁾

- 덴마크 해운그룹인 머스크는 8월 1일 목요일, 홍해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24년 글로벌 컨테이너 물동량 성장세를 상향 조정 발표함
 - 머스크는 '24년 컨테이너 물동량이 전년 대비 4~6% 수준에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이는 지난해 전망치였던 2.5%~4% 대비 상향 조정됨
- 그러나 홍해 리스크의 예측 불확실성과 4분기 공급 및 수요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여전히 평소보다 높은 변동성이 노출되어 있다고 밝힘
 - 머스크는 홍해 리스크가 최소한 올해 말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밝힘
 - 한편, 이번 전망치는 머스크가 '24년 전망치를 제시한 이후 세 번째로 상향 조정한 수치임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36) Reuters(2024.08.01.), <https://www.reuters.com/business/autos-transportation/maersk-lifts-its-full-year-guidance-again-2024-08-01/>(2024.08.19. 검색)

2) 양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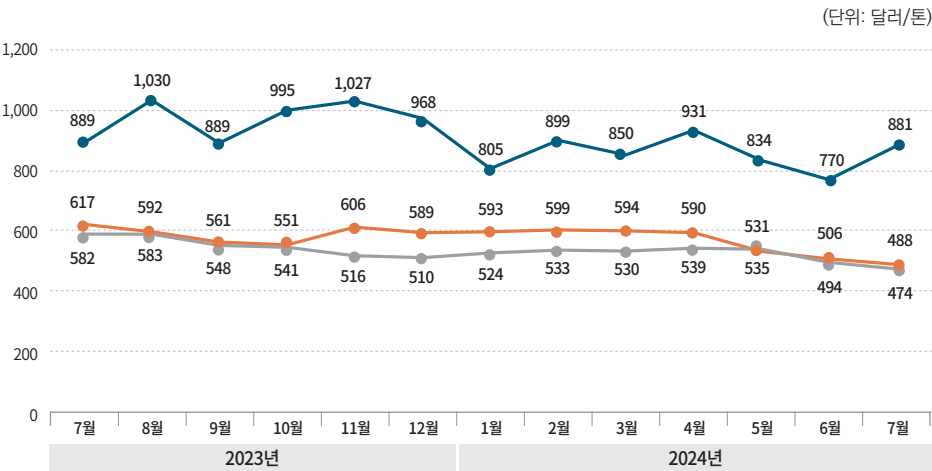
1 '24년 7월 옥수수, 밀, 콩 등 주요 품종의 식용과 사료용 수입단가가 모두 전년 동월 대비 큰 폭의 하락세 기록³⁷⁾

7월 밀 제분 수입단가는 톤당 318달러로 전월 대비 1.5%, 전년 동월 대비 16.1% 감소하였으며 사료용 밀 수입단가도 전년 동월 대비 23.6% 감소한 톤당 266달러를 기록함

식용 옥수수의 수입단가는 전월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전년 동월 대비 21.5% 감소한 톤당 255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사료용 콩의 수입 가격도 전월 대비 2.8%, 전년 동월 대비 25.9% 하락한 톤당 246달러를 기록함

콩 곡종별 수입단가 추이

● 콩 식용
● 콩 채유용
● 콩 대두박



밀과 옥수수 수입단가 추이

구분		2023년						2024년							증가율(%)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밀	제분	379	355	347	324	336	328	341	335	334	331	319	323	318	-1.5	-16.1
	사료용	348	342	329	308	292	277	274	274	275	273	276	277	266	-4.0	-23.6
옥수수	제분	325	300	305	289	276	276	292	267	272	276	258	255	255	0.0	-21.5
	사료용	332	321	305	284	263	252	258	258	257	258	260	253	246	-2.8	-25.9

이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8, sygen@kmi.re.kr

3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곡물(2024.08.01.), http://www.krei.re.kr:18181/board/market_trande/view/wr_id/7828/page/1(2024.08.22. 검색)

② 중국 경기침체로 세계 콩 수입 수요 감소 전망³⁸⁾

 IHS Global Insight에 따르면 중국의 지속적인 부동산 침체와 민간소비 둔화, 무역 긴장 고조 등으로 세계 콩 수입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의 '24년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0.2%p 하락한 5.0%로 전망되고 있으며, '24년 5월까지 중국의 콩 수입량은 3,737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7% 감소함
- 이는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둔화, 중국 정부의 양돈 과잉 생산 방지정책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중국의 2024/25년도 미국산 신곡 계약물량은 '19년 무역전쟁 수준으로 대폭 감소하였음
- 세계 최대 곡물 수입국인 중국의 콩 수입 수요 감소로 콩 가격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이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8, sygen@kmi.re.kr

3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곡물(2024.08.01.), http://www.krei.re.kr:18181/board/market_trande/view/wr_id/7828/page/1(2024.08.22. 검색)

3) 시멘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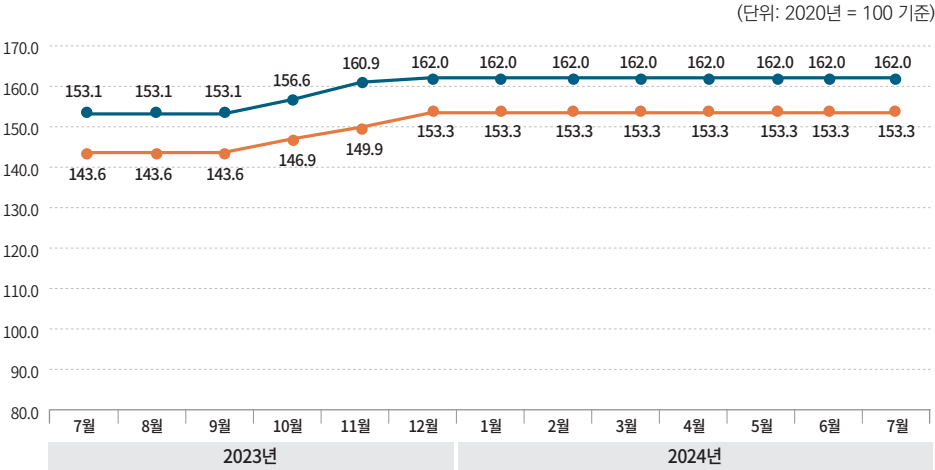


1 7월 시멘트 생산자물가지수 보합세 지속

- ’24년 7월 포틀랜드 및 고로슬래그 시멘트의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과 동일한 162.0p 및 153.3p를 기록함
- 포틀랜드 시멘트는 전년 동월 대비 5.8% 증가, 고로슬래그 시멘트는 6.7% 증가함
- 포틀랜드와 고로슬래그 시멘트의 생산자물가지수는 ’23년 9월 소폭 증가세를 나타냈으나 ’23년 12월에 이후 변동 없이 8개월간 보합세를 나타냄

시멘트 생산자물가지수

● 포틀랜드
● 고로슬래그



구분	2023년						2024년							증가율(%)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포틀랜드	153.1	153.1	153.1	156.6	160.9	162.0	162.0	162.0	162.0	162.0	162.0	162.0	162.0	0.0	5.8
고로슬래그	143.6	143.6	143.6	146.9	149.9	153.3	153.3	153.3	153.3	153.3	153.3	153.3	153.3	0.0	6.7

자료: 국가통계포털 생산자물가지수(원자료: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conn_path=I2\(2024.08.23. 검색\)](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conn_path=I2(2024.08.23. 검색))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2 저탄소 석회석 시멘트 국내 첫 수출³⁹⁾

❖ 쌍용C&E가 저탄소 석회석 시멘트 3만 톤을 지난 10일 국내 최초로 미국에 수출했다고 12일 밝혔다

- 쌍용C&E가 3년간 연구 개발한 저탄소 석회석 시멘트는 일반 시멘트(1종 포틀랜드 시멘트)에 비해 ‘클링커’ 함량을 줄이는 대신 다른 재료를 첨가해 탄소 배출량을 6% 가량 낮춘 것이 특징이며 응결 시간과 압축 강도 등 시멘트 성능은 포틀랜드 시멘트와 동일함
- 석회석과 점토, 철광석 등 시멘트 재료를 소성로에서 고온으로 가열하면 생기는 작은 자갈 같은 덩어리가 클링커임
- 이 클링커에 석고를 첨가해 곱게 분쇄하면 시멘트 가루가 되며 시멘트 제조 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대부분이 클링커를 만드는 과정에서 나옴

❖ 쌍용C&E는 올해 미국에 저탄소 석회석 시멘트 20만 톤을 수출하고 내년엔 60만 톤까지 늘릴 계획임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39) 조선일보(2024.08.13.),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4/08/13/Z5MIWY6YTJEIBKLFQ2M5OG7MGU/(2024.08.19. 검색)

4) 모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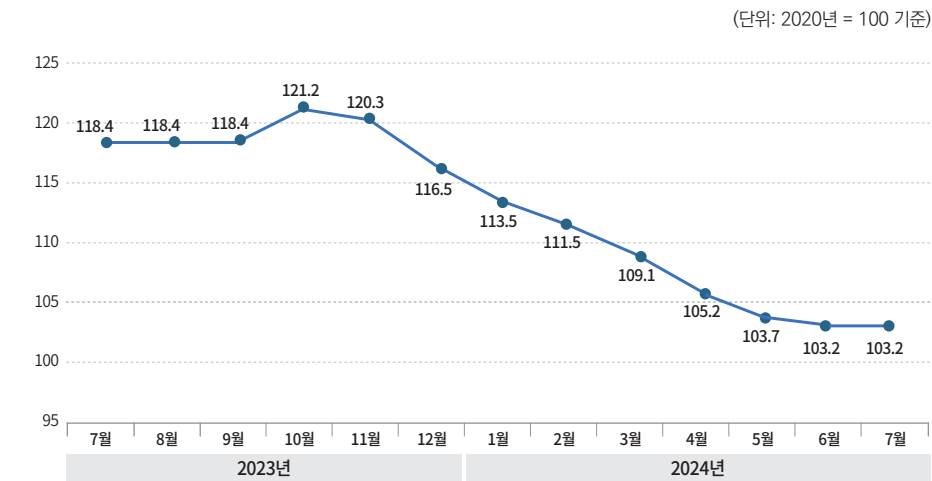


1

7월 생산자물가지수 103.2p 기록,
'23년 10월 이후 9개월째 지속적인 감소세

-  '24년 7월 모래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과 동일, 전년 동월 대비 12.8% 감소함
- '22년부터 '23년 10월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한 생산자물가지수가 '23년 11월 이후 꾸준한 감소세를 보임

모래 생산자물가지수



구분	2023년						2024년							증가율(%)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모래	118.4	118.4	118.4	121.2	120.3	116.5	113.5	111.5	109.1	105.2	103.7	103.2	103.2	0.0	-12.8

자료: 국가통계포털 생산자물가지수(원자료: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conn_path=I2(2024.08.23. 검색)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② 수산부산물, 해수욕장 및 토목공사 모래 대체재로 활용⁴⁰⁾

- 해양수산부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수산부산물을 해수욕장 및 토목공사 모래 대체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이번 개정을 통해 해수욕장 모래, 성토재, 복토재 등 5종의 재활용 유형이 추가되었으며 이는 연간 약 30만 톤이 발생하는 조개류 껍데기의 재활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수산부산물은 '22년 해당 법률 시행 이후 도자기, 세안제, 타일 등 다양한 상품의 원료로 사용되며 재활용 시장이 형성되고 있음
 -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수산부산물의 활용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재활용을 확대할 계획임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40) 물산업신문(2024.07.27.), <http://www.water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7727>(2024.08.02. 검색)

5) 석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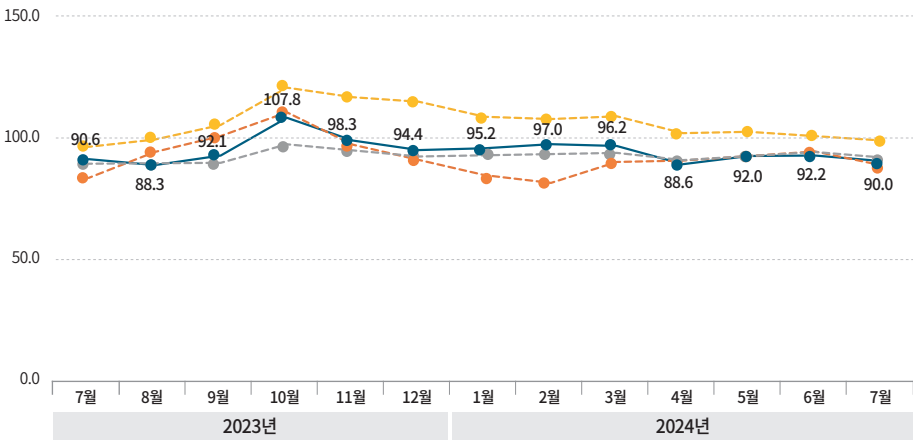
유연탄 가격 추이

- 뉴캐슬
- 리차드베이
- 칼리만탄
- 중국남부

1 '24년 7월 유연탄 가격은 전월 대비 소폭 감소

- 호주 뉴캐슬산(5,500kcal/kg, NAR) FOB 기준 연료탄 7월 평균가는 톤당 90.0달러로 전월 대비 2.4% 감소함
- 지역별로는 남아공 리차드베이산과 인도네시아 칼리만탄산, 중국 남부 유연탄 가격이 각각 6.0%, 2.3%, 1.3% 감소함(전월 대비 기준)

(단위: 달러/톤)



구분	2023년						2024년							증가율(%)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뉴캐슬	90.6	88.3	92.1	107.8	98.3	94.4	95.2	97.0	96.2	88.6	92.0	92.2	90.0	-2.4	-0.7
리차드베이	83.1	93.6	100.2	110.1	96.7	89.7	84.1	81.0	89.6	90.1	92.4	93.9	88.3	-6.0	6.3
칼리만탄	88.7	88.5	89.2	96.9	94.5	91.9	92.6	92.7	93.3	90.4	92.4	93.7	91.5	-2.3	3.1
중국남부	95.8	98.8	104.9	120.1	116.3	114.5	108.1	107.2	108.4	101.5	102.0	99.7	98.4	-1.3	2.7

자료: 한국자원정보서비스, <https://www.komis.or.kr/komis/price/mineralprice/ironoreenergy/pricetrend/ironOreEnergy.do>
(2024.08.19. 검색)

김영훈 전문연구원
051-797-4668, kyh@kmi.re.kr

2 강원권 석탄화력발전소 손실 장기화⁴¹⁾

강원권 동해안의 석탄화력발전소들은 지난 3월 말부터 4달째 송전망 부족 및 낮은 전력수요 등으로 제대로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음

- 그간 송전망 부족 문제로 완전한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던 동해안의 지역 석탄화력 발전사들이 예상보다 낮은 여름철 전력수요로 수익성 악화가 심화되고 있음
- 강원지역의 석탄화력발전사 관계자는 발전소의 현재 가동률이 50% 미만 수준으로, 급전순위도 후순위로 밀리고 최근 전력수요도 낮아 급전지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힘
- 더불어 올해 3월 정부가 계통 안정화를 위한 출력제어를 요청하면서 여름철 일부 원자력발전소가 계획예방정비에 들어가고 전력수요가 급증하면 가동률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여전히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함
- 한편,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강원권 송전제약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긴급 감시 시스템을 가동하여, 발전사들의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임

김영훈 전문연구원

051-797-4668, kyh@kmi.re.kr

41) 에너지경제(2024.07.24.), <https://m.ekn.kr/view.php?key=20240724022262142>(2024.08.19.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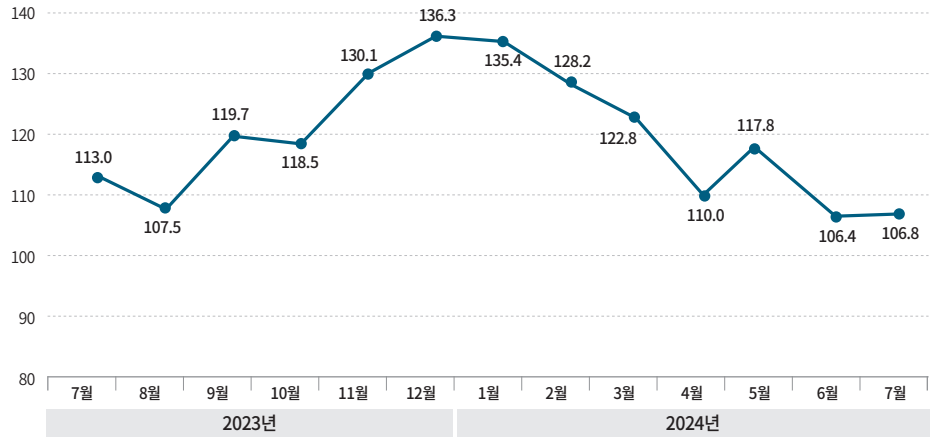
6) 철광석



1 '24년 7월 철광석 가격 전년 동월 대비 5.5% 감소한 106.8달러 기록

- ’24년 7월 철광석 가격(Fe 62%, 중국 칭다오항 도착기준)은 톤당 106.8달러로 전월 대비 0.3% 소폭 증가하였으나, 전년 동월 대비 5.5% 감소함
- 여러 부정적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주요 광산업체인 리오틴토의 중국 철광석 수요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으로 철광석 가격이 단기 반등하였으나 철강 시장 불황과 향후 공급 우려 증가에 따라 7월 5일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음
 - 중국 내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하락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철광석 가격 추이



구분	2023년						2024년							증가율(%)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철광석	113.0	107.5	119.7	118.5	130.1	136.3	135.4	128.2	122.8	110.0	117.8	106.4	106.8	0.3	-5.5

주: 62% 분광 중국 칭다오항 도착 기준
자료: 한국자원정보서비스, <https://www.komis.or.kr/komis/price/mineralprice/ironoreenergy/pricetrend/ironOreEnergy.do>
(2024.08.19. 검색)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2 철광석 가격 '22년 이후 최저치 기록⁴²⁾

글로벌 공급이 수요를 앞지르고 있다는 우려로 철광석 가격이 '22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함

- 특히 중국 철강업체들이 실적이 악화되면서 생산량을 줄이는 가운데 주요 광산업체들은 생산을 늘린 것이 시장이 동요한 원인으로 파악됨
- 싱가포르 철광석 선물 가격은 4일 연속 하락하여 톤당 94달러 이하로 떨어졌으며, 중국의 7월 철강 생산량은 8,300만 톤으로 전년 대비 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중국 정부는 철강 수요를 침체시킨 장기적인 부동산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중국 정부의 건설 부문 부양 노력에 대한 낙관론보다 철강업체들의 실적 악화에 따른 현실로 반응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상황에서 호주 철광석 주요 해상 관문인 포트 헤들랜드항은 지난 7월 4,320만 톤의 수출을 기록하면서 지난해와 유사한 수출 물량을 기록함
- 또한 중국의 철광석 수입이 가격 하락에 따른 재고 보충 목적으로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함에 따라 추가로 철광석을 수입할 의지가 있는지 불확실해지면서 향후 철광석 가격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⁴³⁾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42) BNN Bloomberg(2024.08.15.), <https://www.bnnbloomberg.ca/business/international/2024/08/15/iron-ore-hits-lowest-since-2022-as-mills-crisis-rattles-market/> (2024.08.19. 검색)

43) Reuters(2024.08.12.), <https://www.reuters.com/markets/commodities/iron-ore-outlook-dims-china-inventories-steel-output-fade-russell-2024-08-12/> (2024.08.19.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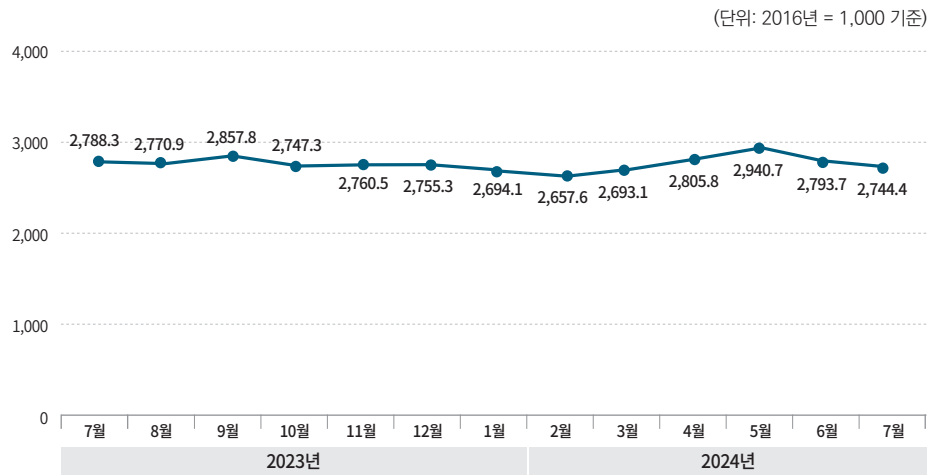
7) 기타광석



광물종합지수 추이

1 7월 광물종합지수는 2,744.4p로 전월 대비 1.8% 감소

’24년 7월 광물종합지수는 전월 대비 1.8% 감소하였으며, 전년 동월(2,788.3p) 대비 1.6% 감소한 2,744.4p를 기록함



구분	2023년						2024년							증가율(%)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광물종합지수	2,788.3	2,770.9	2,857.8	2,747.3	2,760.5	2,755.3	2,694.1	2,657.6	2,693.1	2,805.8	2,940.7	2,793.7	2,744.4	-1.8	-1.6

주: 광물종합지수는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전반적인 자원시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국내 수입금액 20위권 이내 광종 중 산업전략적 중요광물(동, 니켈, 아연, 리튬 등) 15개를 선정하여 자체 개발한 종합지수로서, 기준시점은 2016년 1월을 1,000으로 함. 매일 발표하며 월별 실적은 일별 데이터의 평균값을 산출함
자료: 한국자원정보서비스, <https://www.komis.or.kr/komis/price/priceStocks/pricestocks/priceStocks.do>(2024.08.19. 검색)

김영훈 전문연구원
051-797-4668, kyh@kmi.re.kr

2 한-키르기스스탄,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 협력⁴⁴⁾⁴⁵⁾

-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8월 12일, 한국과 키르기스스탄은 제6차 경제공동위를 열어 공급망 등 협력방안을 담은 합의의사록에 서명했다고 밝힘
- 이번 제6차 경제공동위에서는 교역·투자, 환경, 에너지, 공급망 등 분야별 협력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사업을 모색해나가기로 함
 - 특히 자원이 풍부한 키르기스스탄과 첨단 기술력을 가진 한국 간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구체적인 협력방안도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함
 - 아울러 소수력 발전사업을 비롯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과 물 관리 분야 등 기후변화 및 에너지 안보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간 협의 중인 기후변화 협력 협정도 조속히 체결하기로 함

김영훈 전문연구원

051-797-4668, kyh@kmi.re.kr

44) 연합뉴스(2024.08.12.), <https://www.yna.co.kr/view/AKR20240812146800504>(2024.08.19. 검색)

45) 한국문화홍보서비스(2024.08.13.), <https://www.kocis.go.kr/koreanet/view.do?seq=1049118>(2024.08.19. 검색)

8) 목재



1 '24년 1~6월 누적 원목 수입량은 81만 1천 m³로 전년 동기 대비 25.8% 감소

- 국내 수요 부진으로 수입물량이 감소하나 목질판넬류는 국내 공급 부족으로 증가함
 - 제재목 및 성형목의 누적 수입량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8.6%, 1.7% 감소했으나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및 목재펠릿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함
- 중국을 비롯한 세계적인 건설경기 부진으로 인한 목재 수요감소로 가격이 하락 또는 보험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동지역의 분쟁으로 해상운임이 상승하여 수입 가격의 변동성이 증가하고 있음

국내 목재 품목별
수입현황

품목(단위)	2024년 누적 (1-6월)	2023년 누적 (1-6월)	증감률(%)
원목(천m ³)	811	1,093	-25.8
제재목(천m ³)	727	795	-8.6
성형목재(톤)	40,160	40,854	-1.7
합판(천m ³)	715	646	+10.7
파티클보드(천m ³)	746	608	+22.7
섬유판(천m ³)	163	119	+37.0
목재펠릿(천 톤)	1,889	1,843	+2.5

자료: 산림청 해외목재유통정보(2024.07.29.), [https://www.forest.go.kr/kfswb/cop/bbs/selectBoardArticle.do?nttid=3196149&bbsId=BB SMSTR_1067&pageIndex=1&pageUnit=10&searchTitle=title&searchCont=&searchKey=&searchWriter=&searchDept=&searchWrdr=&ctgryLrcls=&ctgryMd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orgId=&mn=AR01_04_02_03&component=\(2024.08.19. 검색\)](https://www.forest.go.kr/kfswb/cop/bbs/selectBoardArticle.do?nttid=3196149&bbsId=BB SMSTR_1067&pageIndex=1&pageUnit=10&searchTitle=title&searchCont=&searchKey=&searchWriter=&searchDept=&searchWrdr=&ctgryLrcls=&ctgryMd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orgId=&mn=AR01_04_02_03&component=(2024.08.19. 검색))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2 '24년 원목 수입량 역대 최저 예상⁴⁶⁾

- 산림청 임산물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24년 원목 수입량이 160만 m³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통계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로 기록될 전망이다
- '96년 801만 m³에 달했던 원목 수입량은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여왔으며 '23년에는 208만 m³로 감소했음
- 이는 30년 전과 비교해 640만 m³나 감소한 수치로, 목재산업이 겪고 있는 급격한 변화를 보여주는 수치임

국내 목재 품목별
수입현황

품목(단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6월 누적)
원목(만m ³)	261	266	303	260	208	81

자료: 한국목재신문(2024.08.16.)

- 원목을 사용하는 주요 산업인 건설, 건축, 포장, 가구 등의 경기 침체는 목재산업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음
- 원목 수입량 감소는 목재산업, 특히 제재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과거 합판산업에서 원목의 수요가 많았으나, 현재는 합판을 생산하는 회사들이 거의 사라졌고, 남아있는 원목 수요는 대부분 제재용으로만 사용되며 이래 인해 목재산업의 제조 경쟁력이 낮아지고, 개발 능력도 저하되고 있는 상황임
- 특히 수입산과 국산 원목 모두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목재산업 전반이 큰 타격을 받고 있으며 업계 관계자들은 현재 목재산업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하며, 이로 인해 제재산업이 막다른 길에 다다를 수 있다고 경고함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46) 한국목재신문(2023.08.16.), <https://www.wood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742>(2024.08.18.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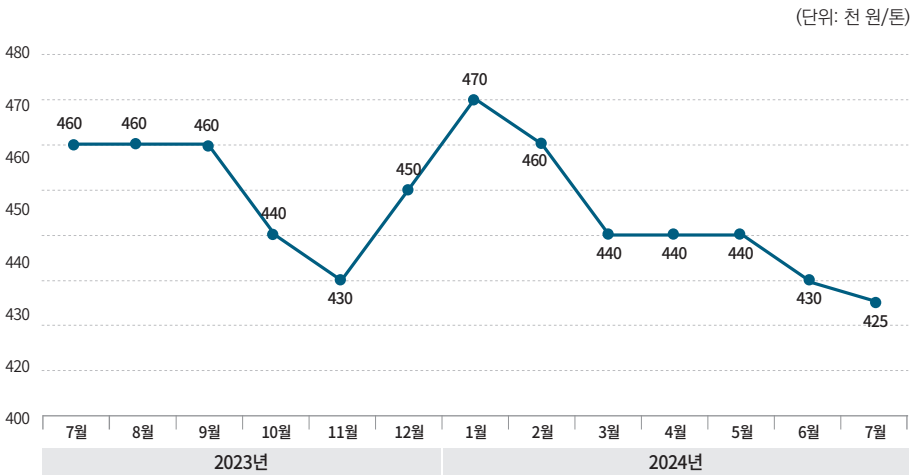
9) 고철



고철(생철)
연간 가격 추이

1 국내 고철 가격 하락

- 국내 7월 생철 가격은 전월 대비 1.2% 하락한 톤당 42만 5천 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 동월 대비 7.6% 하락한 수준임
- '24년 1월까지 2개월 연속 상승하여 톤당 47만 원을 기록했던 고철 가격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보합세를 기록하고 있음



구분	2023년						2024년							증가율(%)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생철	460	460	460	440	430	450	470	460	440	440	440	430	425	-1.2	-7.6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원자재가격정보(2024.08.22.), <https://www.motie.go.kr/kor/contents/103>(2024.08.22. 검색)

조성현 연구원
051-797-4690, shcho@kmi.re.kr

2 고철, 올해 7월 누적 수입 실적 전년 동기 대비 46.3% 감소⁴⁷⁾

7월 고철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41.5% 감소한 19만 8천 톤으로, 지난해 7월부터 13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 앞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5월(13만 4천 톤)부터 두 달 연속 전월 대비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저조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 이에 따라 1~7월 누적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46.3% 감소한 132만 2천 톤을 기록함
- 7월 국가별 수입은 일본산이 전년 동월 대비 47.0% 감소한 13만 8천 톤, 미국산이 84.2% 감소한 7천 톤을 기록한 반면, 러시아산은 188.9% 증가한 2만 6천 톤, 태국산은 91.5% 증가한 1만 3천 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조성현 연구원

051-797-4690, shcho@kmi.re.kr

47) 철강금속신문(2024.08.07.), <http://pdf.snmnews.com/PDF/REAL/2024/08/07/PS010807010100301B0001.pdf>(2024.08.22 검색)

10) 철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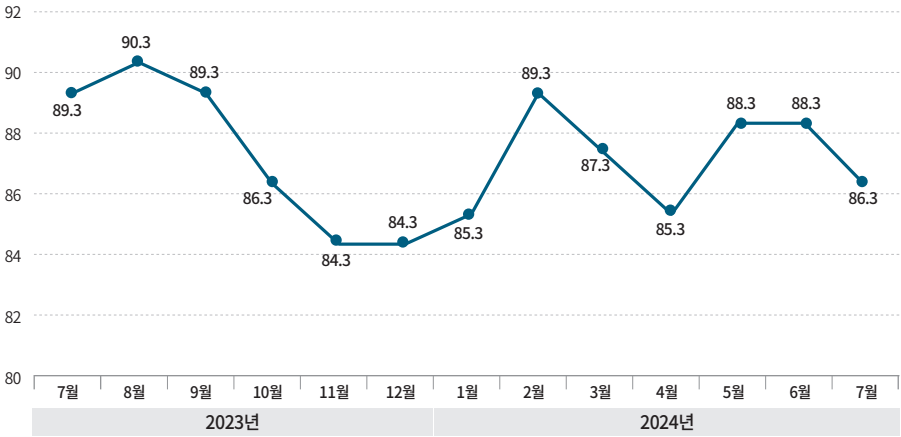


열연코일 연간 가격 추이

1 국내 열연코일 가격 하락

- 7월 열연코일(3.0×4×8mm) 가격은 전월 대비 2.3% 하락한 86만 3천 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 동월 대비 3.4% 하락한 수준임
- '23년 5월까지 톤당 108만 원대를 기록했던 열연코일 가격은 '23년 6월부터 급격히 하락하여 '23년 7월부터 꾸준히 톤당 80만 원~90만 원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음

(단위: 만 원/톤)



구분	2023년						2024년							증가율(%)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열연코일	89.3	90.3	89.3	86.3	84.3	84.3	85.3	89.3	87.3	85.3	88.3	88.3	86.3	-2.3	-3.4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원자재가격정보(2024.08.22.), <https://www.motie.go.kr/kor/contents/103>(2024.08.22. 검색)

조성현 연구원

051-797-4690, shcho@kmi.re.kr

2 중국 열연강판 내수 가격의 급락으로 국내 영향 우려⁴⁸⁾

7월 이후 중국 열연강판 내수 가격은 수요 부진 영향으로 하락을 거듭하여, 한국향 수출 오퍼 가격도 400달러 중반대까지 내려앉은 것으로 분석됨

- 업계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중국 철강재 가격은 국내 가격을 선행하는데, 최근 중국 내 철강재 가격이 7년 4개월 내 최저 수준인 톤당 3,100위안대를 나타내고 있어 국내 철강 가격 또한 더욱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 8월 셋째 주, 중국 2급밀이 제시한 가격은 톤당 450~460달러대로, 수입 원가는 톤당 60만 원 초반대를 형성할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8월 국내 시장에서 유통되는 중국산 열연강판 유통가격은 톤당 70만 원대 중반선을 나타내고 있음
- 철강업계는 중국 내수 시장 부진과 연료가격 약세로 중국 내 열연강판 가격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으며, 중국 내수 부진으로 인해 수출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시장에 중국산 저가 물량이 늘어날 수 있고, 최근 하락을 멈추고 보합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국내 열연강판 가격이 다시금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함

조성현 연구원

051-797-4690, shcho@kmi.re.kr

48) 철강금속신문(2024.08.21.), <http://pdf.snmnews.com/PDF/REAL/2024/08/21/PS010821010100101A0001.pdf>(2024.08.22. 검색)

11) 자동차



1 '24년 6월 국내 자동차산업, 전월 대비 내수·수출·생산 모두 감소⁴⁹⁾

- 6월 내수는 전월 대비 2.4%, 전년 동월 대비 15.2% 감소를 기록함
- 경기부진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고금리로 인한 신차 구매 의향 감소, 전년 동월 대비 영업일수의 감소(-2일), 소형 상용 전기차 수요 감소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15.2% 감소한 13만 7,892대를 기록함
 - 특히 전년 동월의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23.6.30)로 인한 선수요에 따른 역 기저효과의 영향을 받음
- 5월 수출·생산은 전월 대비 각각 1.3%, 5.2% 감소함
- 수출은 전월 대비 소폭 감소(-1.3%)했으나, 우리나라 최대 수출시장인 북미시장으로의 하이브리드차, SUV 수출 확대로 전년 동월 대비 5.0% 증가한 252,244대를 기록함
 - 생산은 내수 부진에 따른 생산 감소로 전년 동월 대비 4.5% 감소한 353,567대를 기록함

(단위 : 대, 백만 \$, %)

'24년 6월 국내
자동차산업 동향

구분	2023년			2024년			증감률		
	연간	6월	1~6월	5월	6월	1~6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전년 동기 대비
내수	1,739,249	162,699	893,737	141,313	137,892	798,543	-2.4	-15.2	-10.7
(국산차)	1,451,663	134,061	759,321	115,095	109,885	667,579	-4.5	-18.0	-12.1
(수입차)	287,586	28,638	134,416	26,218	28,007	130,964	6.8	-2.2	-2.6
수출	2,766,271	240,327	1,421,420	255,594	252,244	1,467,080	-1.3	5.0	3.2
(완성차 수출액)	70,864	6,228	35,648	6,489	6,202	37,010	-4.4	-0.4	3.8
(부품 수출액)	22,954	1,987	11,624	1,836	1,757	11,319	-4.3	-11.6	-2.6
생산	4,243,597	370,293	2,197,696	372,814	353,567	2,145,282	-5.2	-4.5	-2.4

자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산업동향 보고서(2024.07.29.), [https://www.kama.or.kr/NewsController?cmd=V&boardmaster_id=industry&board_id=12321&menuunum=0004&searchGubun=&searchValue=&pagenum=1\(2024.08.18. 검색\)](https://www.kama.or.kr/NewsController?cmd=V&boardmaster_id=industry&board_id=12321&menuunum=0004&searchGubun=&searchValue=&pagenum=1(2024.08.18. 검색))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49)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산업동향 보고서(2024.07.29.), [https://www.kama.or.kr/NewsController?cmd=V&boardmaster_id=industry&board_id=12321&menuunum=0004&searchGubun=&searchValue=&pagenum=1\(2024.08.18. 검색\)](https://www.kama.or.kr/NewsController?cmd=V&boardmaster_id=industry&board_id=12321&menuunum=0004&searchGubun=&searchValue=&pagenum=1(2024.08.18. 검색))

2 일본 완성차 업체, 중국 철수 가속화⁵⁰⁾

중국 자동차 시장이 전기차 주도로 전환됨에 따라 전기차 개발에서 다소 뒤쳐진 일본 자동차가 고전하고 있음

- 미쓰비시자동차는 '23년 광저우자동차그룹과 합작사업을 중단하였고 닛산자동차는 올해 6월 장쑤성에 있는 창저우 승용차 공장을 폐쇄했으며, 엔진 생산을 다루는 상하이히노엔진은 '25년 청산할 계획을 세우는 등 일본 메이커의 중국 사업 재검토가 확산하고 있음
- 일본제철과 바오산강철의 합작회사는 올해 8월 합작회사 청산에 들어가는데, 향후 일본제철은 성장을 전망할 수 있는 미국이나 인도에 자원을 집중할 전망이다
- 중국 정부는 거액의 보조금 등을 통해 자국 전기차 제조업체를 지원했으나 일본 업체들은 하이브리드차나 가솔린차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어 중국에서 전기차 시장 확대를 놓친 것으로 보임

니혼게이지아신문은 혼다자동차는 중국에서 공장 3곳을 폐쇄하고 생산력은 30% 줄일 계획이라고 보도함

- 혼다는 중국 7개 생산 라인 중, 3개를 폐쇄하고 연간 내연기관 차량 생산능력을 기존 149만 대에서 100만 대로 줄일 방침임
- 광둥성 광저우시 공장은 10월, 후베이성 우한시 공장은 11월에 각각 생산을 중단하고 광저우시 공장은 폐쇄 혹은 휴업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때문에 줄어드는 생산력은 약 50만대로 혼다의 글로벌 생산에서 10%에 해당함
- 다만, 교도통신은 혼다가 중국 내 내연기관 차량 생산능력을 연간 약 29만 대 줄이고 전기차(EV)는 24만 대 늘릴 계획이라며 전체적인 생산능력 감소는 5만 대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보도함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50) 파이낸셜뉴스(2024.07.25), <https://www.fnnews.com/news/202407251325545468>(2024.08.19. 검색)

3 중국 비야디(BYD), 전기차 화재에 따른 중국산 배터리 불신 속 국내 전기차 출시 준비⁵¹⁾

연내 국내 전기차 출시를 준비 중인 중국 비야디(BYD)는 최근 전기차 화재 사건이 한국 시장 진출 검토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음

- BYD 코리야는 3분기 중 딜러사를 선정하고 승용 부문 조직 구축을 완료하여 한국 시장 내 브랜드 출범을 공식화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중국산 배터리 일부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음
- 해당 전기차는 '21년 중국 내에서 화재 가능성으로 3만여 대가 리콜된 적이 있는 중국의 파라시스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었으며, 중국산 배터리의 품질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음
- 다만, BYD는 배터리와 완성차를 함께 만들고 있으며, 전기차 판매량은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1위를 기록하고 배터리 사용량에서도 세계 1위인 중국 CATL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어 세계 10위권 배터리 업체인 파라시스와는 차이가 있음
- 제품에서도 BYD는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를 사용하는 파라시스와는 다르게 BYD 전기차에는 주로 LFP(리튬인산철)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음

다만, 전기차 수요가 일시적인 정체기(캐즘)에 있는 상황에서 화재 우려가 증가하면서 전기차 수요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소비자들 사이에서 파라시스 배터리 문제가 중국산 배터리나 중국산 부품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중국 브랜드 전기차의 국내 상륙에 부담이 될 수 있음
- 무엇보다, 특정 브랜드의 문제가 아닌 전기차 산업 전반의 신뢰도에 관한 문제로 확대되고 있어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 신뢰 회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51) 뉴스1(2024.08.14.), <https://www.news1.kr/industry/auto-industry/5509986>(2024.08.19. 검색)

12) 잡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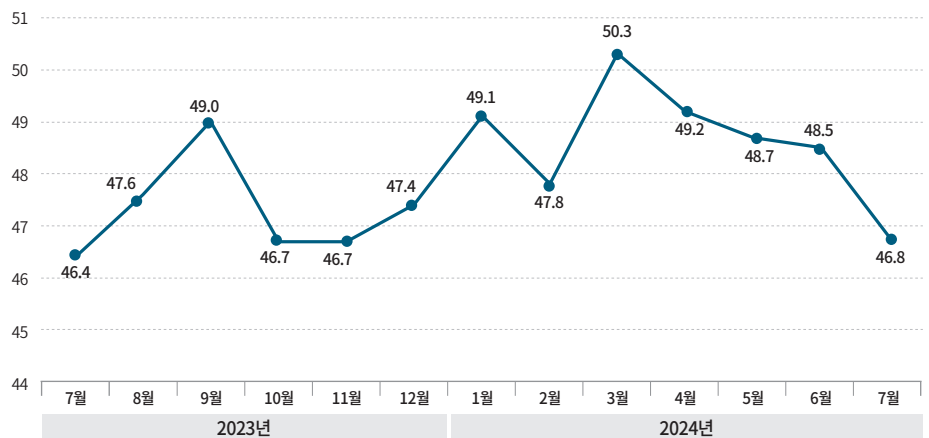


미국 PMI (구매관리자지수) 추이

1 미국 공급자관리협회(ISM), 7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46.8p 기록⁵²⁾

■ 지난 6월 수치인 48.5p보다 1.7p 하락하며 경기 위축세 지속, 3월 이후 4개월 연속 감소하며 '24년 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함

- 생산(50.2p→48.5p)과 고용(51.1p→49.3p)은 전월 대비 위축되었으나 신규 주문은 (45.4p→49.3p) 개선된 것으로 파악됨



자료: Trading Economics (2024.08.01.), KMI 작성

이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8, sygen@kmi.re.kr

2 일반기계 수출 역대 7월 중 최대치 기록, 3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⁵³⁾

■ '24년 7월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 11개 품목 수출이 전년 대비 증가함, 특히 일반기계 수출은 역대 7월 중 최대치인 49억 달러(+12.5%)를 기록함

- 반도체, 컴퓨터, 무선통신기기 수출이 전년 대비 50% 이상 큰폭으로 증가하며 우리나라 7월 수출 증가세를 견인함
- 대(對)중국 수출은 IT 업황 개선에 따른 반도체·무선통신기기 등 IT 품목 수출이 증가하면서 '22.10월(122억 달러) 이후 21개월 만에 최대 실적인 114억 달러(+14.9%)를 기록함
- 대미국 수출도 역대 7월 중 최대 실적인 102억 달러(+9.3%)를 기록하면서 12개월 연속 월별 최대 실적을 경신함

이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8, sygen@kmi.re.kr

52) Trading Economics(2024.08.01.), <https://tradingeconomics.com/united-states/business-confidence> (2024.08.22. 검색)

5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산업통상 자원부(2024.08.01.),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43915> (2024.08.22.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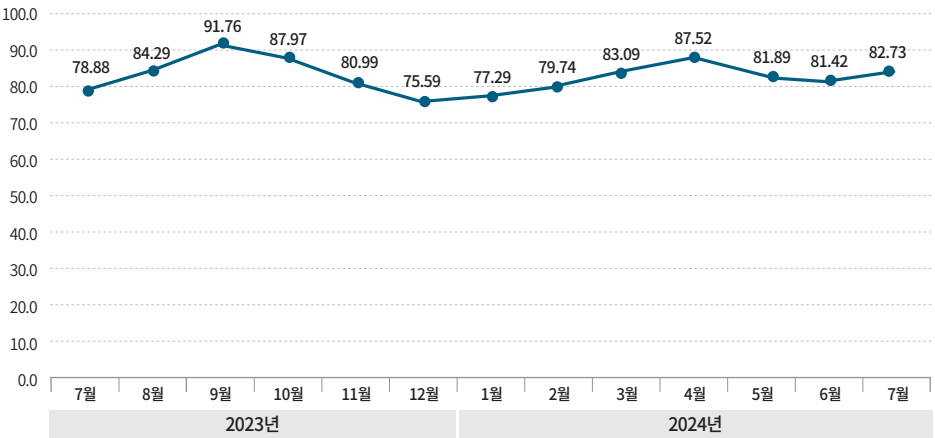
13) 유류



1 '24년 7월 국제유가, Dubai, Brent, WTI 모두 전월 대비 증가

- ’24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국제유가는 4월 이후 완만한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나 7월 다시 소폭 증가하면서 세계 3대 유종의 배럴당 7월 평균 유가는 82.73달러를 기록함
- 지속되는 OPEC+ 중심의 석유 감산 정책에도 수요 부진으로 유가가 크게 높아지지 않으면서 주요 산유국들의 재정이 악화되어 감산 기조가 일부 완화될 전망이다
- 러-우 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팔 전쟁, 이스라엘의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 폭격(’24.04.01), 이란의 보복공격(’24.04.13), 이란 대통령의 헬리콥터 추락(’24.05.19)·사망, 이스라엘의 하마스 정치지도자 암살(’24.07.31) 등 중동 정세의 긴장이 이어지고 있어 유동적인 시장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보임

국제 원유 가격 추이



구분	2023년						2024년							증가율(%)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Dubai	80.45	86.46	93.25	89.75	83.55	77.33	78.85	80.88	84.18	89.17	84.04	82.56	83.83	1.5	4.2
Brent	80.16	85.10	92.59	88.70	82.03	77.32	79.15	81.72	84.67	89.00	83.00	83.00	83.88	1.1	4.6
WTI	76.03	81.32	89.43	85.47	77.38	72.12	73.86	76.61	80.41	84.39	78.62	78.70	80.48	2.3	5.9
평균	78.88	84.29	91.76	87.97	80.99	75.59	77.29	79.74	83.09	87.52	81.89	81.42	82.73	1.6	4.9

자료: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유가동향 국제유가, <https://www.petronet.co.kr/main2.jsp>(2024.08.18. 검색)

2 바이오 선박유, 종합보세구역을 통해 국내 최초 블렌딩 수출⁵⁴⁾

7월 29일 국내 최초로 평택·당진항에 소재한 종합보세구역에서 국산 석유제품이 블렌딩 (혼합제조)되어 수출됨

- 올해 1월 관세청은 산업부·국세청과의 협력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해 그동안 복잡한 세금 문제 등으로 불가능했던 국산 석유제품의 종합보세구역 내 블렌딩을 가능하도록 함
- 블렌딩은 두 가지 이상의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해 수요자의 요구 또는 환경기준에 맞는 최종 석유제품을 만드는 작업이며, 완제품은 최종 수요자에게 판매됨
- 이번 석유제품 블렌딩 수출은 규제혁신 이후 국내 정유사와 오일뱅크 업체의 사전 준비 작업을 거쳐 실행되었으며, 실제 산업현장에서 수출로 실현된 첫 사례임
- 수출된 제품은 HD현대오일뱅크가 자체 생산한 초저유황중유와 국내업체로부터 구매한 바이오 디젤을 혼합해 만든 친환경 바이오 선박유로서 외국적 무역선의 선박 연료로 판매됨
- HD현대오일뱅크는 연간 6만 톤, 600억 원 상당의 블렌딩 석유제품을 연료유로 판매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며, 향후 해외 석유중계업체와 외국적 선사에도 판매를 확대하여 현재의 6배 이상인 연간 40만 톤, 4,000억 원 상당의 블렌딩 석유제품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함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54) 조세일보(2024.07.29), <https://www.joseilbo.com/news/htmls/2024/07/20240729522320.html>(2024.08.18. 검색)

3 에쓰오일, 국내 지속가능항공유(SAF) 생산설비 조성 추진⁵⁵⁾

에쓰오일은 샤힌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는 '26년 이후 국내 SAF 전용 생산설비 조성을 검토하고 있음

- 에쓰오일은 탄소 배출 규제 강화에 따라 SAF가 새로운 수익 창출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SAF 생산을 위한 전용 공장 건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 샤힌 프로젝트는 에쓰오일이 울산 온산국가산업단지에서 진행 중인 석유화학 생산시설 조성 사업으로 국내 석유화학 역사상 최대 규모인 9조 원이 투입된 대규모 프로젝트임
- SAF는 폐식용유 등 바이오 기반 원료로 생산한 친환경 연료이며,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기존 항공유 대비 40~82% 높아 항공업계 탄소 감축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음
- 시장조사기관 모더인텔리전스에 따르면 SAF 시장 규모는 '21년 1조 원에서 '27년 약 30조 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에쓰오일의 SAF 투자 검토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 개정 영향인 것으로 보임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 개정으로 기존의 석유 원료로만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풀어 바이오연료와 재생 합성연료도 사용할 수 있게 됨
- 국내 정유 4사는 '30년까지 SAF 분야에 약 6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나 아직 현재까지 국내에 SAF 단독 생산설비는 전무한 상황임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55) 아시아경제(2024.08.13), <https://view.asiae.co.kr/article/2024081217063798234>(2024.08.18. 검색)

14) 화학공업
생산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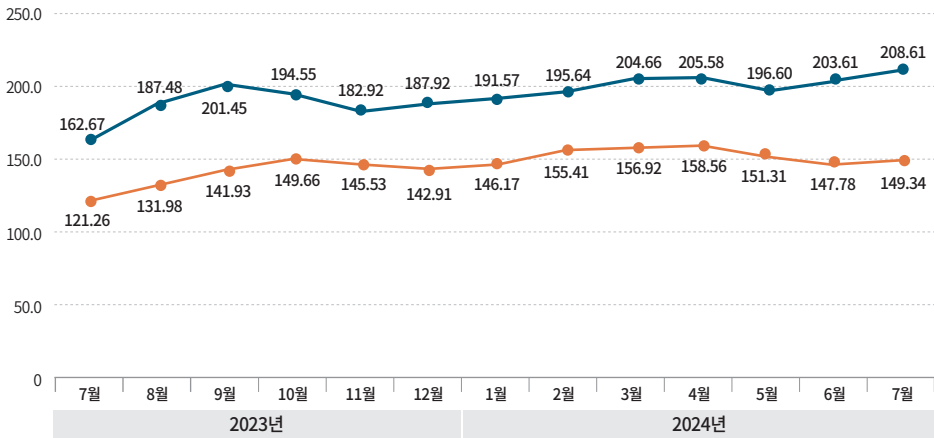


1 7월 생산자물가지수, 전월 대비 나프타·에틸렌 상승

- 나프타와 에틸렌의 생산자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상승하면서 각각 208.61p, 149.34p를 기록함
- 원유 정제를 통해 생산되는 나프타의 '24년 7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2.5%, 전년 동월 대비 28.2% 상승함
 - 나프타 크래킹을 통해 생산되는 석유화학산업의 핵심원료인 에틸렌의 '24년 7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1.1%, 전년 동월 대비 23.2% 상승함
 - 6월 나프타의 생산자물가지수가 반등하면서 7월에는 에틸렌의 생산자물가지수도 반등하여 동반 상승함

생산자물가지수 추이

● 나프타
● 에틸렌



구분	2023년						2024년							증가율(%)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나프타	162.67	187.48	201.45	194.55	182.92	187.92	191.57	195.64	204.66	205.58	196.60	203.61	208.61	2.5	28.2
에틸렌	121.26	131.98	141.93	149.66	145.53	142.91	146.17	155.41	156.92	158.56	151.31	147.78	149.34	1.1	23.2

자료: 국가통계포털 생산자물가지수(원자료: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vw_cd=MT_ZTITLE&list_id=P2_301002&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2024.08.21. 검색\)](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vw_cd=MT_ZTITLE&list_id=P2_301002&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2024.08.21. 검색))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2 석유화학 업황, 단기간 내 회복 어려울 전망⁵⁶⁾

정부가 석유화학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했으나 구체적인 해법이 나오지 못하고 있음

- 석유화학 시장은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인한 석유화학 업종의 위기의식이 증폭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9일 주요 석유화학 기업 사장단 간담회를 개최하고 석유 산업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함
- '23년 글로벌 석유화학 산업은 역대 최대 공급 과잉을 기록했으나 중국 및 중동을 중심으로 설비 증설에 나서면서 단기간 내 업황 회복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 석유화학 제품의 최대 수입국이었던 중국은 설비를 지속적으로 증설하면 '20년 에틸렌, 프로필렌(PP) 등 기초 유분 자급률이 100%를 넘어섰으며, '25년에는 120%를 기록할 전망이다
- 중동 국가들은 석유 수요가 조만간 정점을 찍는 피크오일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석유화학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인 아람코는 서부 메디나주에 세계 최대 정유·석유화학 통합 공장을 짓고 있음
- 나이스신용평가는 '석유화학사 2024년 상반기 정기평가 결과'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외국 경쟁 업체보다 원가 구조가 높아 수급 상황이 개선되어도 과거 호황기보다 수익률 미흡할 수 있다고 진단함
- 특히 '26년 이후 가동되는 중국 설비는 원가 경쟁력이 우수할 것으로 예상돼 우리나라의 나프타분해시설(NCC) 업계는 과거 일본처럼 구조조정이 가속할 개연성이 크다고 봄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56) 아시아경제(2024.07.19.), <https://view.asiae.co.kr/article/2024071908590980367>(2024.08.18. 검색)

3 여수석유화학산업단지, 탄소포집 활용으로 탄소중립 추진⁵⁷⁾

- 전라남도는 8월 6일 여수시, GS칼텍스와 여수산단 석유화학산업 온실가스 배출 저감기술 확보를 위한 탄소포집활용(CCU) 메가프로젝트 추진 업무협약을 맺음
- 탄소포집활용 메가프로젝트는 '23년 12월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 탄소중립기술 특별위원회에서 확정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고도화 전략(안)'에 따라 이산화탄소 공급에서 제품 활용까지 탄소포집활용 전주기 밸류체인을 구성하여 해당 기술의 설비를 구축하고 실증 연구개발(R&D)을 추진하는 정부의 대형 프로젝트임
 - 이번 업무협약은 '탄소포집활용 메가프로젝트 선정 및 추진을 위한 협력 방안 마련'과 '기술개발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목표로 이루어짐
 - 협약에 따라 전라남도와 여수시는 탄소포집활용 산업생태계 조성, 기술개발 과제 선정 등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맡게 되었으며, GS칼텍스는 탄소포집활용 공정 기술 확보와 실증사업 추진,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 사업화를 추진하게 됨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57) 에너지데일리(2024.08.06.), <https://www.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8561>(2024.08.18. 검색)

연구책임자

최석우 항만수요분석연구실장

연구진

이기열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연구위원

김영훈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전문연구원

신정훈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전문연구원

이나영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전문연구원

이수영 항만정책·운영연구실 전문연구원

이화섭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전문연구원

조성현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연구원

감리

김근섭 항만연구본부장

항만과 산업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발행일 2024년 8월 29일

편집·발행인 김종덕 원장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연구본부 항만수요분석연구실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동삼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www.kmi.re.kr

TEL 051-797-4800 **FAX** 051-797-4810

편집디자인 크리커뮤니케이션 **TEL** 02-2273-1775